

순천만국가정원, 지역발전 중심축 자리매김

4월1일 재개장... 관람객 370만명 박람회 성공 사례 벤치마킹 방문 30여개 지자체 정원도시 조성 열풍 문화 콘텐츠 결합도시 경쟁력 향상

순천만국가정원이 지역발전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4월1일 재개장해 지금까지 37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날로그 정원에 도시 전략산업인 AI와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정원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주력한 게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해 박람회를 통해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정원은 입장객 수 778만명을 기록하며 수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온 대한민국 대

표 테마파크인 에버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박람회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전국 기관·단체가 앞다투어 방문했으며 올해 국가정원까지 이어져 현재까지 810여개 기관·단체가 다녀갔다.

이는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정원도시 조성을 선포하는 등 정원조성 열풍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종,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정원박람회도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순천 따라 하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은 한발 앞서 단순히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산업을 연계하고 지역민, 지역업체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 하면 관람객을 도심권으로 끌어들이 지역 경제 활력과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전략이다.

올해 새로 태어난 국가정원은 아날로그

정원의 매력은 더욱 풍성하게 살리면서 문화콘텐츠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즐기는 재미까지 더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 컨셉에서 말해주듯 각종 AI와 캐릭터가 정원 곳곳에 녹여져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정원의 랜드마크였던 꿈의다리의 전면적인 리뉴얼이다. 14만명 어린이들의 꿈이 담겨 있던 꿈의다리는 이제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우주인이 착륙한 다리인 '스페이스 브릿지'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우주(UFO), 물, 원시의 순천만습지라는 생명에너지를 미디어로 담아내어 국가정원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어릴 적 꿈이 실현되는 공간인 '스페이스 허브'도 빼놓을 수 없다. 기존의 예코 지오 온실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확보된 광활한 공간에 어린이들의 꿈을 우주(미래)로 실어 나르는 350m 길이의 대형 활주로가 구현됐다.

노을정원 일원에 조성된 '두다하우스'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 캐릭터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 어린이 관람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박람회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크릿가든은 4D 콘텐츠 체험관을 즐길 수 있는 '시크릿 어드벤처'로 리뉴얼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테마의 문화콘텐츠로 풍성하게 리뉴얼된 국가정원은 여전히 식지 않는 박람회의 열기를 이어가며 그 열풍이 뜨겁게 지속되고 있다.

새 단장을 위해 5개월간 휴장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8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정원을 찾은 관람객 수는 370만명을 넘어 서며 곧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관구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은 어떤 자원과 시책을 연계해도 성공 가능성이 큰 도시의 든든한 황금알과 같다"며 "순천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촘촘하게 연결해 도시 100년의 먹거리 공간을 든든히 채우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추진 여수시, 2027년까지 160억 투입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후 지하배관(488km) 최초 안전진단 실시 △사외배관 관련 구조물 각종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시뮬레이션 기반 침수 화재·폭발사고 위험예측 모델 개발 등이다.

본 사업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105억원, 도비 16억 5000만원, 시비 38억 5000만원 등 총 16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관제를 통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시민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별교읍 여성 자원봉사 단체 간담회 보성군, 겨울철 취약계층 돕기 나서

보성군은 지난 12일 별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별교읍 여성 자원봉사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민관협력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별교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돕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별교읍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고항생각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등 각 여성단체 임원진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겨울철 김장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수 있는 김장 나눔 활동이다. 참여 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각 단체의 지원책을 모색했다.

회의 결과 별교읍 김장 김치 1포기 기부 릴레이, 유관기관 및 여성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페스타 행사, 복지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김치 전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진석 별교읍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2024 여수동동북축제'에 8만 2000여 명이 방문하며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여수시 제공

'여수동동북축제' 성황 속 폐막...8만명 방문

'북 퍼레이드' 등 볼거리 다채

여수시 대표 문화 체험형 축제인 '2024 여수동동북축제'에 8만2000여 명이 방문하며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여수동동북축제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선소 및 용기공원 일대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는 ESI(환경·사회·공헌·국제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에 중점을 뒀다.

시민 프리지(즉흥) 공연, 동동 아티스트 경연대회 등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공연으로 오전부터 많은 시민과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첫날 선소 앞 해상에서 펼쳐진 불꽃놀이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동동북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북 퍼레이드'는 북 아티스트들이 약 700m를 행진하며 다양한 북 공연을 선보였고, 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축제의 열기를 이어갔다.

올해 처음 시도된 '동동 글로벌 빌리지'에서는 소풍을 주제로 한 휴식 공간과 동시에 8개국 문화 체험, 각 나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외에도 가수 김장훈 초청 공연과 어린이 상상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프리마켓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동동북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람객에게 지역적·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 여수시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국비 확보 잔걸음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12일에 이어 13일에도 국회를 방문하며, 1박 2일 동안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3일, 공영민 군수는 안도걸 의원 등을 만나 고흥군의 핵심 사업들을 설명하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고흥군이 건의한 역점사업으로는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5622억 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1002억 원) △고흥만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

후단지 조성(400억 원) 등 총 10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영민 군수는 이들 사업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국비 확보가 절실한 역점사업들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고흥=심정우 기자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 광양시·한국로지스플·두산밥캣

광양시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 한국로지스플, 두산밥캣코리아 간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협력 및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분야 등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수소도시에 선정됐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해온 광양시는 한국로지스플, 두산밥캣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연기관 지게차를 수소지게차로 교체하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수소 모빌리티(지게차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홍보 △수소 지게차 개발 보급 및 정보공유 상호 협력 △수소 지게차 보급을 위한 정비 서비스 및 수소 충전 인프라 운영 지원 △광양항 배후단지, 광양국가산단에서 운영 중인 지게차 교체 시 수소지게차로의 단계적 전환 △수소 모빌리티(지게차 등) 임대 서비스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상호 협력이 있다.

성종국 한국로지스플 본부장은 "광양 지역에서 수소지게차 임대 1호를 기록하겠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광양시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상철 두산밥캣코리아 ALAO(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영업전무는 "두산밥캣은 한국로지스플과 함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흥 부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소 지게차 실증 개발사업과 수소지게차 활용 및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